

캐스퍼 EV 첫 수출 앞두고 노조 파업 우려 목소리

10월말 전기차 3000대 영국·독일 등 유럽에 역사적 첫 수출길
'광주형 일자리' 이미지 타격에 20만대까지 생산량 확대 차질도

전국 최초 노·사·민·정 상생형 일자리에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캐스퍼 전기차가 이달 안에 역사적인 첫 수출길에 오른다. 유럽 수출 물량은 약 3000대 수준으로 영국을 비롯한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GGM은 RV 시장에서의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캐스퍼와 함께 캐스퍼 전기차의 유럽 수출을 동력으로 연간 생산량을 10만대(공장 최대 생산능력)까지 늘리고 차종의 추가 위탁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

GGM이 생산량을 20만대까지 확대할 경우 지역 내 부품 클러스터까지 형성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최근들이 GGM 출범 당시 노사민정이 합의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어긋나는 노동조합의 명분 없는 활동이 거세지면서, 전국 첫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이미지 타격과 함께 원활한 차량 생산 등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9면>

9월 GGM에 따르면 다음 주 목표항에서 캐스퍼 EV 선적식을 진행한다. 수출을 위한 인증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15일, 늦어도 다음 주 내에는 선적식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GGM의 설명이다.

현재 캐스퍼 EV의 유럽 현지 인기는 급상승 중이다. 현재 유럽 현지 차량판매 법인을 통한 주문량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수출 예정 물량은 3000대 수준으로, 영국에 가장 많은 500대 외에도 독일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에 200~400대씩을 수출한다.

이달 유럽 수출 물량은 지난달 국내 캐스퍼(내연기관+EV) 전체 판매량(4002대)의 75% 수준이다. 이달부터 내수와 수출까지 더하면 캐스퍼의 판매량은 월별 평균 판매량인 3500대의 2배 수준인 7000대 수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캐스퍼 EV는 다음 주 유럽 수출을 시작으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 50개국으로 수출

될 예정이다.

내수 뿐만 아니라 수출 확대도 GGM이 경쟁력을 갖춘다면 차종 추가 위탁 등으로 부품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한 수준인 20만대까지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국내에서 먼저 출시된 캐스퍼 EV는 긍정적인 시장반응을 받았고, GGM은 이에 맞춰 생산량을 기존보다 25% 늘린 상태다. 매주 화·목 잔업으로 출고 일정을 맞추고 있다.

캐스퍼는 RV시장에 지각 변동을 이끌고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 중 가장 작은 차체를 가지고 있지만, 지난 8월의 경우 5000대가 넘게(5031대) 팔리는 등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캐스퍼의 지난 9월 판매량도 4002대(내연기관 1927대+EV 2057대)로, 준중형 강자인 아반떼(3747대)보다도 많았고 경쟁 차종으로 분류되는 레이(3363대)를 앞섰다.

캐스퍼는 또 국내 완성차 가운데 최초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모델이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다. 테슬라를 비롯한 소수의 해외 차량이 온라인 판매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 캐스퍼는 현대차그룹 판매 모델 중 유일하게 영업소를 통하지 않고 모든 차량을 온라인을 통해 고객에게 인도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윤몽현 GGM 대표이사는 "적어도 20만대를 생산하면 배터리, 모터 등 핵심기술을 가진 부품기업들을 유치해 GGM을 위한 부품 클러스터까지 형성할 수 있다"면서 "GGM은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 정책'으로 지난 2019년 9월 20일 자동차 생산 합작 법인 GGM을 출범하였으며, 지난 2021년 9월 29일부터 현대 캐스퍼, 지난 2월 6일부터 캐스퍼 전기차를 각각 위탁생산하고 있다. 합작 법인 자본금 2300억 원은 광주시(483억원), 현대자동차(437억원), 광주은행(260억원) 등 36개 투자자와 기관이 참여해 모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KIA 한국시리즈 준비 ... 소크라테스 홈런포

한국시리즈를 앞둔 9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상무 피닉스와의 연습경기에서 1만5000여명의 팬들이 야구장을 찾았다. 2회말 무사 2루에서 소크라테스가 2점홈런을 쳐내고 있다. > 관련기사 18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알립니다

영호남 문화 대축전에 초대합니다



11~13일 광주 쌍암공원 중앙광장
상생·교류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영호남 지역 농·수·축 특산물 판매

영·호남 지역민들이 빛고을 광주에서 만나 정겨운 소통의 전지를 벌입니다.

영·호남 대표 언론사인 광주일보와 매일신문은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광주 쌍암공원 중앙광장 일원 특설행사장에서 '영·호남 문화 대축전'을 개최합니다.

2014년 서울을 시작으로 이후 대구와 광주에

서 번갈아가며 개최되는 이번 대축전은 영·호남 화합과 상생을 다지고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참가자 모두가 흥겹게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영·호남 지역에서 엄선된 농·수·축 특산물이 준비돼 있습니다.

영남과 호남의 상생과 교류 확대를 목표로 열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두 지역은 라이벌이 아닌 소중한 파트너로 거듭날 것입니다. 민족 대통합의 시발점이자 동서화합의 교두보가 될 이번 대축전에 광주·전남·전북 지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행사명 : 2024 영·호남 문화 대축전
- 일시 : 2024년 10월 11일(금)~13일(일)
- 장소 : 광주광역시 쌍암공원 중앙광장 일원 특설행사장
- 주최·주관 : 광주일보사·매일신문사
- 문의 :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062-220-0555

光州日報社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정부, 지방교부세 삭감에 지자체 비상 ▶2면

한빛원전 6호기 원자로 헤드 추락사고 '쉬쉬' ▶6면

팔도 핫플레이스 - 제주도 삼다수 숲길 ▶22면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가치 또 같이'

HS HYOSUNG

HS효성의 심볼인 'MASTERIA' 는

'근원·나무(숲)'을 뜻하는 'Materia'와 별의 여신을 뜻하는 'Aster(별)'의 라틴어를 블렌딩하였으며 'Master, Material' 등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HS효성의 로고는 '새벽별'이라는 효성의 이름과 함께 해오며 늘 세상과 우리 삶을 가지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별'과 깨끗한 공기, 시원한 그늘 등 여러 가치를 만들어 강인한 생명력과 성장을 통해 건강한 미래를 상징하는 '나무'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인류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가치를 제공하는 'Leading Star, Value Tree'로서 HS효성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